

“올림픽 자원봉사활동은 내 인생 행운”

홍천군 노인복지관 회원 6명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각오

“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안심하고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설렌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최고의 시간이 될 것이다.”

올해 2월 9일부터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하는 홍천군노인복지관 소속 회원 6명은 “올림픽경기장과 경기장 주변에서 자원봉사 할 생각을 하면 너무 흥분된다”며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이들은 박영근(73), 이종순(70), 전영(67), 성주용(65), 유한성(70), 조정철(65) 씨다. 이종순 씨만 컬링경기장에서 봉사하고, 나머지 5명은 일본어, 중국어, 영어 통역을 맡았



◇ 박영근, 전영, 조정철, 성주용, 이종순(사진 왼쪽부터), 유한성(작은사진) 씨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동안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박영근·이종순·전영·성주용·유한성·조정철 씨 통역 등 맡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자원봉사에 달렸다” 자긍심 대단

다. 이들은 지난해 자원봉사자 모집에서 원어민과 레벨테스트 등을 거친 높은 경쟁률을 통과했다. 지난달 15-17일 평창 알펜시아 등에서 현장 교육을 받는 등 지금까지 6-7차례에 걸쳐 자원봉사 교육을 받고 있다.

박영근, 이종순 씨는 부부다. 박 씨는 일본어 통역과 안내를 맡았다. 이 부부는 서울서 개인 사업을 하다 20년 전 홍천으로 이사 왔다. 박 씨는 노인복지관에서 색소폰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부부는 “우리나라 자원봉사자들의 웃는 모습과 친절을 전 세계에 전하고 싶다”며 “손주들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전영 씨는 서울서 일본과 무역업을 하다 9년 전 홍천에 정착했다. 노인복지관에서 일본어회화반을 수강 중에 있다. 전 씨는 “일본어 반 회원들과 논의하다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 봉사활동에 지원했다”며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

해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자원봉사에 임하겠다”고 말해 각오가 남달랐다. 전 씨는 “초교 방과후 수업으로 일본어를 가르치고 싶다”고 했다.

성주용 씨는 전 씨와 일본어 회화반원이다. 한양대병원 시설관리 팀장으로 퇴임 후 11년 전 홍천으로 이사했다. 성씨는 “노인복지관에서 일본어 공부한 것이 너무 잘한 일”이라며 “올림픽 참여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곳까지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봉사는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한 활동으로 즐거움이 저절로 생긴다고 했다.

유한성 씨는 중국어 통역과 안내, 운전봉사를 한다.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퇴직 후 20년 전 귀촌, 노인복지관에서 예술단활동을 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에 중국어 반 개설이 안 돼 스스로 공부했는데, 자원봉사 원어민테스트에서 한 번에 합격했다. 유 씨는 “생애의 마지막이란 각오로 봉사활동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조정철 씨는 영어통역을 맡았다. 조 씨는 대

우차, 포드차 영남본부장 등을 거쳐 필리핀에서 사업을 했던 경험으로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했다. 4년 전 홍천으로 와서 홍천실버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조 씨는 “봉사만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평창올림픽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됐다”며 “패럴림픽까지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정철, 박세구 기자

어르신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 홍천실버신문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길 바랍니다. 2018년에도 홍천실버신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홍천실버신문 기자단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CONTENTS

02 - 홍천군노인복지관 2018년 주요사업

03 - 신년사

04 - 사회복지사들의 새해다짐

05 - 경로당

06 - 다문화가정이야기

07 - 우리 직장 칭찬릴레이

08 - 기자칼럼

- 독자기고



홍천군노인복지관 2018년 주요사업

베이비부머세대 행복한 노후지원 전개

**노인복지관 이용자 만족도등 평가시스템 구축
경제력·고독·무위·질병 등 4고 보호체계기능 강화**



◇ 홍천군노인복지관은 2018년 신관 증축과 더불어 행복한 노후지원사업을 전개한다.

홍천군노인복지관은 2009년 12월 개관한 후 '인생과 사회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노년'이란 비전 아래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하는 행복한 노인'을 위해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홍천군노인복지관은 2018년 '행복한 삶과 활기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복지관'이란 목표로 사례관리, 베이비부머 및 세대통합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로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이용자 관리의 정기적 상담, 욕구 및 만족도조사 결과반영을 통한 평가시스템 구축을 진행한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관의 회원 증가율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용자 관리를 위한 이용 상담, 전문 상담으로 초기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인권교육, 평생교육사업, 기능회복사업, 조사연구사업이 진행된다. 또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셔틀버스 운행, 이·미용서비스 등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두 번째로 4고(빈고, 고독고, 무위고, 병고) 해결을 위한 보호체계 기능을 강화한다. 강점 중심의 접근과 개별화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외부 자문을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하고자 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방문목욕서비

스를 통한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생명 숲 기억키움학교의 확대 운영,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자살 및 학대 예방, 응급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재가복지사업인 가가호호(집배원의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반갑다친구야(복지관을 거점으로 재가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전개), 도시락배달 사업 강화로 행복한 노후를 지원한다.

세 번째로 베이비부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베이비부머세대의 특성에 맞는 여가문화 활동 기반을 마련해 사회의 기여 증

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공연으로 문화 및 감정교류를 할 수 있는 시니어예술단 영업, 노후설계, 전문교육과 맞춤형 교육, 직업훈련으로 일자리 및 재능나눔사업을 전개한다. 이는 베이비부머세대와 에코세대의 유기적 연결고리 체계 마련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네 번째로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통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지역사회 내 캠페인, 노인가상체험 등을 통한 노인인식개선사업 전개, 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연령대의 세대가 어울려 함께 학습할 수 있는 쿠키 및 텃밭체험, 1:1 핸드폰활용 전수 등 학습공동체 조성으로 사회통합을 이룬다.

홍천군노인복지관은 2018년 7월 신관이 준공된다. 신관은 2층 규모로 경로식당, 강당,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홍천군노인회관이 홍천읍 진리(구 장애인 근로작업장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된다.

2018년 달라지는 노인정책

- 1월 65세 이상 의료비 본인부담액 감소 : 2만원 이하 10%, 2만 원 초과~2만5천 원 20% 등 차등 적용
- 1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 중위소득 100%(월447만 원)까지 본인부담금 경감
- 7월 노인장기요양등급 중 1~5등급 치매노인 방문간호 서비스 시행 : 2개월 간 4회 무료
- 9월 기초노령연금 월25만 원 지급 :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노인에게 5만 원 인상 지급

2018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하는 행복한 어르신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 내 용 : 노노케어, 공공시설봉사, 복지기관봉사, 경륜전수활동, 카페 및 쿠키실 운영 등 12, 9개월 활동 / 월270,000원 지급
- 인 원 : 500명
- 접수기간 : 2018년 1월~
- 신청방법 : 복지관 내방 후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지참
- 신청자격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문의전화 : 033-430-8700 / 8730

신년사

“우리 모두 세상 밝히는 등불이 되자”

■ 정남 월정사복지재단 대표이사



새로운 해가 시작 되었습니다. 『금강경』에 4구계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이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하며, 여로역여전(如露亦如電)하니 응작여시관(應作如是觀)하라.” 꿈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또 번갯불 같고 이슬 같다는 것이지요.

왜 한창 추운 겨울이 한해의 시작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 봄·여름 자신의 기운을 왕성하게 발산하고 나

무가 가을에 결실을 맺고 단풍을 뽐내다가 뿌리로 돌아가듯이, 한해를 잘 보내기위해 자기를 돌아보고 힘을 축적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빠르게 흐르는 유수와 같은 시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기위해서 이 추운 겨울 잘 준비해야 합니다.

작년은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부분들도 인류가 더 발전하기 위하여 썩은 부분을 도려낸 것에 불과합니다. 경제의 발전은 항상 중요하지만 이제 이 발전된 살림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양한 삶의 복지는 더욱 발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흥천군 노인복지관 또한 많은 이용자와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를 보살필 것입니다.

원각경 보안보살장에 보면, ‘여백천등(如百千燈)이 광조일실(光照一室)에 기광(其光)이 변만(徧滿)해야 무괴무잡(無壞無雜)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 천 등불이 한 방에 비칠 때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도 서로 무너짐도 뒤섞임도 없이 한 빛으로 밝게 빛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행자는 포단을 이불삼아 정진을 하며, 사회 일선에서는 소란스런 시정을 야단법석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외호하는 이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대중을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되 그 빛을 서로 방해하지 않으며 하나의 큰 빛이 될 때 비로소 불교가, 더 나아가서 한국의 미래는 밝게 존재할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들에게 화두를 던져 봅시다. “그대 지금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가고 있는가. 어떤 흔들림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간절한 구도의 열정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무술년 새해를 시작하는 흥천군노인복지관의 모든 직원들과 이용자 및 관계자 분들 그 가시는 길에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도 올리겠습니다.

“행복의 힘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어요”

■ 자월 흥천군노인복지관장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술년(戊戌年) 새해는 우리 인간과 아주 오랜 시간을 충성스럽고 친숙하게 함께 지내온 동물로, 책임감과 주인에 대한 복종심이 강하여 한 번 마음을 주면 쉽게 돌아서지 않는 개의 해입니다. 또한 음양오행으로 살펴보면 “무(戊)”는 흙에 해당하며, 사람들은 흙의 색을 황색, 노랑, 황금색으로, 무술년(戊戌年)이 부르기도 듣기도 좋게 황금 개의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를 황금개의 해로 부르며 세상 모두가 행복해 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우리에게 그냥 다가오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항상 최선을 다하고, 내가 먼저가 아니고 남을 배려하려는 마음가짐과, 그 모든 일에 책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대승경전의 하나인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에서 ‘초중후선(初中後善)’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과 중간, 끝 모두 한결같은 마음, 처음과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처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이 있어야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끝을 보고 싶어 하지만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는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초중후선(初中後

善)의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작한 것에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갖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신뢰(信賴)는 쌓여갈 것이고, 자연스럽게 행복(幸福)은 내 곁에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늘 함께 있는 것입니다.

흥천군노인복지관은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하는 행복한 노후’라는 미션을 운영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우리 복지관은 지역사회 모두와 노력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흥천실버신문이 도전을 시작한지 벌써 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버신문 또한 어르신들의 행복한 소식을 전달하여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일아함경(增一阿含經)』에 의하면, 하늘 세계나 인간 세계 모두 행복의 힘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다고 합니다. 부처의 길(佛道)도 역시 그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공극의 경지를 다한 자도 아직 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幸福)입니다.

새해에도 부처님의 가피와 행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사회모범 보여 존경받는 노인상 정립”

■ 이형주 대한노인회 흥천군지회장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대한노인회 흥천군지회장으로 선출된 이형주입니다. 보내주시는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흥천실버신문 지면을 빌려 인사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외 정치와 경제적으로 매우 다사다난했던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새해에도 어르신, 여러분께서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노인문제를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노년기의 심리적 고립, 소외, 빈곤문제, 복지사각지대 노인층 등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치 않게 생각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초고령화사회이고 저출산시대에 노인들을 부양하려면 여러 면에서 부담이 많은 우리의 소리가 많아 노인들의 서글픔과 민망함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이로 인해 노인 가출, 노인 학대, 자살층(8.7%)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흥천군이 22.4%라는 노인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시기에 노인복지정책을 홍보실천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사회모범을 보이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존경받는 노인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부양받는 노인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으로”라는 목표를 세우고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흥천군노인복지관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노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교육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전국 어디에 내놔도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자월 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에 흥천노인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흥천실버신문 발간에 노력하시는 기자단 여러분, 다양한 일자리사업, 프로그램과 봉사활동 등 새로운 사업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사회를 바로잡는데 앞장서는 건전한 매체가 되어주십시오.

끝으로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올해 노인복지관에서 재밌게 보내세요



◇ 홍천군노인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들은 2018년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

홍천군 노인복지관에는 8명의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2009년 말 노인복지관이 개관할 때부터 근무한 베테랑을 비롯해 지난해 입사한 새내기도 있다. 이들은 3000명이 넘는 노인복지관 소속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일자리창출, 여가선용,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어르신들이 활기찬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원이다.

사회복지사들의 일상은 매우 바쁘다. 어르신들의 내방, 전화상담, 복지관의 모든 프로그램과 사업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위한 창의력과 어떤 일을 맡아도 잘할 수 있기 위해 손재주와 강인한 체력까지 요구된다. 말대로 복지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지식과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일부어르신들의 막무가내 식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다 받아줘야 하는 어려운 직업이다. 노인복지관은 월1회 이상 각종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회복지사들은 늘 분주하다. 최근에는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늘고 있어 며칠 동안 아이템개발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복지사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들 복지사들은 “많은 어르신들의 질문과 전화와 상담 등 바쁘고 고된 일상 속에서 친절하고 밝은 모습으로 일일이 응대해 드리지 못 할 때가 간혹 있는데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일부어르신들이 소리 지르고, 화낼 때 너무 힘들다며 무조건 해 달라, 왜 이거밖에 안되냐는

말들을 할 때 상처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하는 힘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올해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은 노인일자리를 확충해 어르신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카페, 쿠키실과 같은 공모사업 추진으로 더 많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1,2,3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노인일자리와 홍천실버신문을 맡고 있는 조현정(36) 팀장은 어르신기자들의 기사와 독자칼럼 원고를 받아 편집, 발행으로 한 달 내내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을 기다리는 독자들을 생각하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또 노인복지관 개관 멤버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어르신들을 마주쳐 인사할 때마다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고 했다.

기억키움학교 주간 보호프로그램 담당인 이현정(37) 복지사는 기억력 감퇴, 우울증 등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이 되고 있다. 이 복지사는 “어르신들이 여가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칭찬하는 모습과 기억키움학교에 나오는 월요일이 기다려진다는 말을 들을 때 정말 보람

을 느낀다”고 했다.

홍천 시니어예술단과 노인인식개선사업을 담당하는 최보람(26) 복지사는 “어르신들의 꾸준한 연습과 멋진 무대공연을 통해 열정을 느끼는 모습은 젊은이와 다를 바가 없다”며 “프로그램 참여 후 만족하고 정성어린 편지와 엽서 등을 보내줄 때 기쁨을 느낀다”고 했다.

총무팀 소속 최보미(27) 복지사는 매년 자신을 공주라고 불러주는 부부가 있다고 했다. 이는 항상 밝은 얼굴로 어르신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모습을 예쁘게 봐 공주로 부르게 됐다는 것을 듣고 어르신에 더 밝은 모습을 선사하겠다고 다짐했다.

평생교육담당 김보라(29) 복지사는 “복지관을 통해 열심히 배우고, 삶의 생기와 활기를 찾는 어르신들을 볼 때 활기를 느낀다”고 한다. 여가 시간을 보람 있게 보내고 배움의 기쁨으로 뿌듯해 하는 어르신들을 볼 때와 가정 방문했던 분들이 찾아와 줄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텃밭을 가꾸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길러낸 농작물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

내방객·전화상담, 아이템 개발 등 항상 분주 어르신들 불만에 고심하고 격려들을 때 보람

는 김서연(41) 복지사는 겨울이라 진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내년에는 더 많은 농작물을 어르신들과 함께 재배하고 싶다고 했다.

운영지원팀 김영주(40) 팀장은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참여지원팀 안석현(39) 팀장은 사회복지사들의 치유와 교육을 담당한다. 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돕는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맡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함께 호흡하고, 행사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줄 때 자긍심을 느낀다고 했다.

홍천군노인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들은 “올해도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사회복지사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했다.

이들은 홍천군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올해에도 건강하고 더욱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기원했다.

김순화 기자



경로당 탐방시리즈 (43) 내촌면 화상대2리 경로당

회원 80%가 부부 “봄·가을여행 즐기며 삽니다”



◇ 내촌면 화상대2리 경로당(회장 박영섭 77·앞줄 가운데)

집성촌마을로 주민 50%가 회원 모든 일 단합 최고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기금마련해 불우이웃돕기 계획

홍천 내촌면 화상대2리 경로당은 1,2리 연합으로 운영하다 현 사무장인 김종철(74) 씨의 부친이 땅을 기증해 2000년 3월 준공해 분리됐다. 최일종(88) 초대회장을 시작으로 현재 박영섭(77) 회장과 회원 35명(남자 17명, 여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상대2리는 60여 명의 작은 부락이지만 경로당 회원이 반 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회원 80% 이상이 부부가 다니고 있다.

용석찬(52) 이장과 원옥자(63) 부녀회장은 경로당에서 필요한 고추장, 된장, 간장, 고기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있다.

화상대2리는 김씨의 집성촌으로 형성되어 있고 어르신을 곤경하고 예를 갖추는 보기 드문 마을로 정평이 나 있다. 박 회장과 사무장은 “회원들과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이 좋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했다. 박 회장은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 농번기가 지난 후 경로당을 개방해 건강체조, 요가, 한방치료, 뜸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경로당 일자리 창출 강화사업을 통해 기금 1500만 원을 마련해 앞으로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전 회원이 봄이면 꽃구경, 가을이면 단풍구경을 정기적으로 다니고 추수가 끝난 후 동네잔치를 하기도 한다. 회원 중 최고령자인 이순심(97) 씨와 김명주(83) 씨는 경

로당에 매일 나와 회원들과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며 생활한다.

지난해는 80세가 된 회원 3명에 대한 경로잔치를 열었는데 예를 갖추는 본보기가 되어 마을잔치가 되었다고 한다. 2018년에도 80세가 된 회원들을 위한 잔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모든 일에 하나같이 협조하고 단합된 것은 집성촌의 좋은 점이다. 방인대 씨는 경로당에 필요한 노래방기기를 후원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또 내촌농협은 매년 경로당에 현금 50만 원과 쌀 60kg을 지원하고 있다.

박 회장은 “정부가 7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빈부격차 해소에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안태수 기자

◇ 경로당 임원 현황

직책	성명	연령	직업
회장	박영섭	77	농업
부회장	변화월	85	주부
부회장	김치수	71	농업
감사	김용수	75	농업
감사	김영훈	68	농업
사무장	김종철	74	농업

☎ 033-433-5587

고시조

산촌에 눈이 오니 - 신희 (1566~1628) / 조선중기의 문신

산촌에 눈이 오니 / 들길이 묻혔구나
시비를 열지마라 / 날 찾음이 뉘었으리
밤중만 일편명월이 / 그 벗인가 하노라

·시비(柴扉) : 시립문
·일편명월(一片明月) : 한조각 밝은 달
·해설 : 산촌의 겨울밤, 눈이와서 길조차 끊어졌다. 그러니 화자를 찾아 올 사람이 누가 있으랴. 유배당시 화자의 고요하고 쓸쓸한 내면이 비춰진다. 그 유배의 고통속에서 화자는 속세를 벗어나 자연을 벗하며 힘겨움을 이기고 있다.

조정철 기자

사자성어

拈一坊一(넌일방일)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를 쥐고 또 하나를 쥐려한다면 그 두 개를 모두 잃게 된다는 말이지요. 중국 송나라 때 한 아이가 커다란 장독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어른들은 허둥대며 시간만 낭비했다. 그때 사마광이라는 아이가 돌멩이를 주워들고 장독을 깨뜨려 버렸어요. 더 귀한 것을 얻으려면 덜 귀한 것은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정작 돌로 깨부셔야 할 것은 무엇인가? 무슨년 새해에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조정철 기자

다문화가정이야기 (42) 홍천군 북방면 누엔티 녹화이 (28) 씨

시댁식구 입맛 잘 맞추고 농사일 잘하는 복덩이



◇ 누엔티 녹화이(28) 씨가 두 자녀와 함께 밝게 웃고 있다.

시어머니 “머리좋아 한국어·반찬 잘한다”며 며느리 자랑 가족과 나들이·여행 즐기고 한국국적 취득 ‘이혜원’ 개명

“처음 시집와서 말을 못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

베트남에서 시집와 홍천군 북방면 구만리에 살고 있는 누엔티 녹화이(28) 씨는 “남들은 말을 잘한다고 하지만 한국 와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한국말 배우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녀는 베트남 컨터시에서 아버지 누엔 반남(61) 씨와 어머니 누엔티 띠엥(62) 씨의 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중학교 졸업 후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일을 도왔다.

평소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궁금했고 한국을 좋아해 한국으로 시집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지인의 소개로 2008년 3월 17일 남편(이상용·46)을 만났다.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이 좋은 것 같아 마음에 들었다. 만난 이틀 후 결혼식을 올리고 호치민시로 3일간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서류정리가 되는 동안 한국어 공부를 했다. 3개월이 지났지만 연락이 없어 베트남 행정기관에 가보니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돼 있었다. 6개월 후 남편이 재입국해 재심사를 거쳐 2009년 8월 10일 한국에 왔다.

남편은 아버지 이견우(72) 씨와 어머니 박춘화(68) 씨의 1남 3녀 중 맏이다. 시댁은 농사와 한우 2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 후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고 농한기에는 원주, 평창까지 가서 공사 일을 하고 있다.

그녀는 시댁에서 처음 한국음식을 접했지만 거부감 없이 모든 음식을 잘 먹었다. 시댁은 매운 음식을 못 먹어 음식 적응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다. 친정에서는 음식을 만들 기회가 없어 베트남음식은 잘 만들지 않았지만 시집와서는 시어머니가 음식 만드는 것을 보고 배워 지금은 시댁식구들의 입맛을 잘 맞출 정도로 음식솜씨가 좋다.

특히 닭볶음탕, 닭발요리 등은 전문음식점보다 더 맛있게 만든다고 자랑했다. 쇠고기는 냄새가 싫다며 돼지고기를 인삼, 후추, 양파 등을 넣고 볶으면 식구들이 모두 좋아한다고 했다.

가끔씩 베트남 음식이 생각나면 재료를 사다가 쌀국수나 찹쌀가루, 코코넛가루, 고구마, 베트남 콩을 넣어 만든 쩌라옥 같은 간식을 만들어 시댁식구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딸 지은(9)과 아들 동규(6)를 낳았다. 첫째는 입덧을 모르고 지나갔지만 둘째는 심한 입덧으로 고생을 했다. 가끔 시간이 있을 때 남편과 함께 나들이로 바닷가 있는 강릉, 속초 등을 다녀오기도 한다. 특히 속초에는 베트남에서 함께 시집온 친구가 살고 있어 친구 부부와 만나 고향의 얘기도 하고 심심한 회와 그녀가 좋아하는 게 짬을 먹고 온다.

홍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삼척, 대명비발디파크 등 1박2일 관광을 다녀왔다. 그녀는 모처럼의 관광지에서 가까운 마을에 있는 대명비발디파크였다며 웃었다. 또 제주도 관광을 신청했는데 시댁이 재력이 있어 탈락됐다고 했다. 그녀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베트남 친정에 가서 1개월 이상 머물며 고향의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온다고 했다.

2009년 9월 4일 첫딸 낳았을 때 친정어머니가 그녀 집에 와서 3개월 동안 손녀 뒷바라지 하고 돌아갔다. 2012년 7월 25일 부모님 모두 한국에 와서 1년간 머물다 갔고, 2017년 3월 다시 왔다가 지난 11월 28일 베트남으로 돌아갔다.

시집와서 홍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3년간 한국어공부를 해서 한국어가 능숙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머리가 좋아 한국어도 빨리 배우고 반찬도 맛있게 잘하고 농사일도 잘한다.”고 자랑했다.

자녀들이 자라자 자녀교육 관계로 차량이용이 필요했지만 대중교통이 자주 없어 불편하자 홍천읍에 있는 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해 2014년 12월 자동차운전면허(1종)를 취득, 지금은 편리하게 운행하고 있다. 2015년 6월 10일 한국국적을 취득해 이름을 이혜원으로 바꿨다.

지난해 몇 달 동안 홍천읍에 있는 산돌식품에서 일했지만 농사일이 바빠서 그만뒀다. 농사철에는 가족들과 함께 오이, 가지, 찹옥수수 등을 상자로 대량 출하해 판매하고 있지만 원가를 제하면 수익은 많지 않다고 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집일이 바빠서 얼마동안은 다른 일은 못할 것”이라며 “열심히 농사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옥희 기자



우리 직장 칭찬 릴레이 (44)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평창올림픽때 국도 6·42호선 제설대책에 구슬땀

홍천국토관리사무소(소장 이광재)는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으로 106명의 직원이 강원도의 52.8%인 8개 시·군(홍천군, 춘천시, 원주시, 인제군, 횡성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을 관할하고 있다. 주요업무는 국도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점검 및 제설, 재해대책 수립, 예방 및 복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도구역 점검, 제한차량 운행허가 및 과적단속, 한강 분류 주요 치수 시설 유지관리 등이다. 겨울철에는 도로 안전을 위해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 중순까지 제설대책 기간을 정하고 비상근무를 선다. 평창동계올림픽 대회기간(2018년 2월9~25일)에는 국도 6호선과 국도 42호선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재난대응 훈련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7 을지훈련 현장훈련(삼마치터널)'을 실시하여 터널 붕괴 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11월에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인제군 인제터널)'을 실시해 터널 내 재난발생시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사무실에 직원들이 모여 칭찬릴레이를 시작했다.

운영지원과 이주상 주무관이 보수과 최만희(35) 주무관을 칭찬했다. 태백시청에서 근무하다 전직해 2017년 5월에 부임한 최 주무관은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올림픽 폭설대응 관계기관 합동훈련에 참석하는 등 제설업무 담당자로서 겨울철 도로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호우 주의보와 태풍 경보 발령이나 눈 예보가 있을 때마다 즉시 출근해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제설작업 현황 등을 체크하느라 비상근무 할 때가 많다. 이번겨울 제설대책 기간에는 제설장고별 8개 권역(홍천, 원주, 횡성, 춘천, 철원, 양구, 인제, 고사리재)으로 나누어 제설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홍천은 8개 권역 중 제일 긴

105.4km를 20명의 도로보수원들이 덤프트럭 15대와 도로관리차 2대로 제설작업을 하고있다. 그는 "제설작업이 힘들고 비상근무 할 때도 많지만 도로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을 칭찬했다. 라 주무관은 국가하천 관리와 수해대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드론(무인비행장치)을 구입해서 상시 접근이 어려운 하천구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드론을 사용해 본 결과 그 효용성이 커서 향후 각종 행사와 훈련 시 등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충주댐에서 경기와 강원도계에 이르는 국가하천인 한강(46.52km)과 국가하천시설 영월저류지 등을 직원 3명과 하천보수원 6명이 함께 관리하고 있다.

홍수로 인한 재해방지와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를 하고 수문, 제방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라 주무관은 운영지원과 이주상(33) 주무관을 칭찬했다. 이 주무관은 2015년 12월 입사하여 공사와 용역

계약, 물품과 관급자재 구매, 세출예산 지출과 재정관리, 국유재산 관리, 인사, 감사, 청렴, 성과관리, 일반 서무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량이 과중해도 짧은 패기와 열정으로 7명의 직원들과 단합해서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고 있는 유능한 직원이다.

2016년부터 홍천국토청렴봉사단을 구성해서 자발적인 지원자들을 모집해서 자체 봉사활동과 관내 유관기관, 지자체, 경찰서, 시민단체, 복지단체 등과 연계해서 합동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6.7월 2회에 걸쳐 홍천군시의 버스터미널에서 정화활동을 실시했고, 지난해 9월 홍천군노인요양원에서 요양원 시설 청소를 실시했다.

이들 직원들은 서로를 칭찬하면서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해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정규 기자



최만희 주무관



김송이 주무관



라기광 주무관



이주상 주무관

최만희 주무관 - 제설담당 4개월 이상 겨울철 도로안전에 만전

김송이 주무관 - 국도 19호선 터널, 교량유지 관리하는 모범직원

라기광 주무관 - 드론 구입 상시접근 어려운 하천구역 철저 관리

이주상 주무관 - 홍천국토청렴봉사단 구성, 합동 봉사활동 전개

최 주무관은 구조물과 김송이(34) 주무관을 칭찬했다. 과에서 홍일점인 김 주무관은 항상 밝은 모습으로 국도 19호선 터널 및 교량유지관리를 하는 모범직원이다. 교량, 터널, 육교 등을 점검, 유지관리 및 보수하고, 병목지점과 위험도로 등도 개선한다. 터널 관리는 수시 및 정기 점검을 통해 개선점을 파악해서 개선공사를 시행하고 노후 된 시설물은 보수공사를 한다.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터널을 현장 답사하여 시설물 미비점 개선 및 개선방안 등을 토론하는 재난대응 합동답사단을 운영하고, 사고가 나면 항상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터널 내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도로 통행재개,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삼마치터널과 인제터널에서 2차례에 걸쳐 재난 대응훈련(을지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주관하고 신속한 사고대응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여러 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사무소 위상을 높였다.

김 주무관은 하천관리과 라기광(49) 주무관



기자칼럼



허 남 영

홍천실버신문 기자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치매나 중풍이 발병했다면 가족들의 충격은 매우 클 것이다.

당사자의 고통은 물론이거니와 보살펴야 하는 자녀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심지어 직장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고 편찮은 부모님을 위한 간병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알지만 이 또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어서 자녀들의 고통은 적지 않을 것이다.

최근 부모님이 치매나 중풍에 걸리면 선택의 여지없이 결정하는 것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사회복지 시설은 요양보호등급(요양원인 경우)을 받고 입소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10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보호자 입장에서는 50만 원 가량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편찮은 부모님과 가족들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어느 시인은 사회복지시설(요양

원)에 입소한 어르신과 가족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육아휴직처럼 효도휴직도 필요하다

별이 뜨는 밤이면 어르신 그리워 / 가족들이 별뿔뿔처럼 울고 달이 뜬 저녁이면 가족이 그리워 / 어르신이 달무리처럼 우시고

이런 그리움을 대체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이나 산후휴직처럼, 효도휴직이 있었으면 어떨까?

휴직기간 직장이 보장되어 놓고 병든 부모를 곁에서 돌보아 줄 수

있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흐뭇한 일이다.

우리가 늙으면, 행동이나 생각이 어린애처럼 되어,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보다도 엄마의 밥이 더 맛있듯이, 아무리 좋은 시설일지라도 자식의 손길이 더 따뜻할 것이다.

효도휴직을 한 후, 부모의 휠체어를 밀어 드리며 오붓한 산책을 하고, 진자리 마른자리를 갈아 드리며 부모님의 미소를 보고, 좋아

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며 즐거운 대화를 하고, 부모님 살아계심을 감사드리는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윤택해질 것이다.

어느 어르신이 중풍을 당했을 때, 큰아들이 1년, 작은아들이 1년, 큰딸이 1년, 작은딸이 1년 등 자녀들이 1년씩 돌아가며 효도휴직을 하고 부모님을 보살필 수 있다면, 자식 많은 사람일수록 혜택이 많을 수 있다.

그러면 '다자식 상팔자'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현상도 막을 수 있고, 주택난 해소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효도휴직 도입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제도도입에 따른 예산, 방법, 절차, 부작용 최소화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나가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서 시범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현대는 먹고 사는 시대가 지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시대를 갈구하고 있다.

효도휴직 실현으로 헌법의 행복 추구권이 증대되고 부모 자식 등으로 이뤄진 가족 구성이 부활되기를 소망해 본다.

'부모의 은덕을 생각하면 자식은 부모를 업고 수미산을 백 천 번 돌더라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불경)'는 말씀이 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느냐?(성경)'는 말을 깨닫고 실천할 때이다.

독자기고



최 수 옥

홍천향교 전교

요즘 현대인은 매우 바쁘고, 많은 정보 속에 허둥대고 살아가고 있다.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만연되고, 서양의 개인주의가 우리나라에 잘못 이해되어 이기주의로 변질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개인주의에 반하여 민족,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충(忠)이고, 부모, 어른, 연장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효(孝)이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속에서는 내가 먼저이지만, 충효사상에서는

내가 아닌 타인이 먼저이어야 하는 것이다.

충의 대표적인 인물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 나라를 구한 33인의 민족지도자 등을 들 수 있는데 모두 나보다는 나라, 민족을 먼저

걱정했던 인물들이다.

효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효녀 심청을 들 수 있다. 자신보다는 아버지를 먼저 생각했던 것이다.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만연되어도 충이나 효의 정신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IMF 위기가 터진 1997년 전 국민들의 자발적인 금모으기 행사는 나보다는 먼저 나라를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효교는 예의와 범절을 강조한다.

예의와 범절이란 개인과 개인이 모인 단체 속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단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한 개인이 되고, 그 다음은 가정이고, 그 다음은 국가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효'와

다. 남편이 일찍 죽어버려 혼자가 된 부인이 남편을 따라 죽었다고 해보자.

유교의 형식에 치우친 사고를 하자면 이 여인에게 열너리는 칭호가 붙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열너리는 칭호가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할까? 이것은 천부당 만

충효(忠孝)와 유교, 그리고 명분놀음

국가에 대한 '충'이 유교의 중요한 덕목이 된 것이다. 삼강오륜 같은 것이 좋은 예가 된다. 그러나 충과 효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결코 아니지만 충과 효의 강조가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즉 단체를 우선시하는 형식에 밀려 개인의 중요성은 단체 속에 있으면서도 소외되어버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열녀'라는 말이 있

부당한 얘기이다.

유교문화가 예의와 범절을 이 세상에 뿌리내리게 한 훌륭한 성과도 있지만, 형식에 치우칠 때, 우리는 이를 두고 '허례허식'이라고 한다.

유교의 훌륭한 점은 모두가 배워야 하지만, 쓸데없는 명분놀음에 빠져 형식에 치우친 사고를 하다가 생명의 중요성까지 망각한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